



# 忠北大同門會報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제56호

발행인 : 윤양택 편집인 : 어강석



##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개최 자랑스러운 동문패 및 부회장 위촉장 전달

충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지난 4월 25일 18시 30분부터 산남동 경화대반점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모교 출신 5명을 대상으로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태영(화공 77, 제천·단양), 이광희(농생물 82, 청주시 서원),

이강일(경영 87, 청주시 상당), 송재봉(행정대학원, 청주시 청원), 신장식(법학전문대학원, 비례대표) 등 5명의 당선자가 참석했다. 또한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박종진 교수 회장, 충북대 보직교수, 총동문회 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모교의 위상을 높인 당선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동문패'를 수여했으며, 이어서 모교 고창섭 총장이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또한 윤양택 회장은 모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는 의미로 5명의 당선인을 총동문회 부회장

으로 추대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양택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충북대 개교 이래 최대 인원인 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은 모교와 20여만 동문의 위상을 한껏 높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5명의 당선인이 거점국립대인 충북대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 모교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21회 총동문 골프대회, 성황리에 개최



충북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시부터 음성군 소재 코스카 컨트리클럽에서 60팀(2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총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골프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류근형 토목 86)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동문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

되었으며, 개회식 후 대회는 13시 30분부터 샷건 방식(18홀 동시 티오프)으로 3개 코스, 27홀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대회의 신페리오 우승컵은 남자부 김래운(경영대학원, 70.4타) 동문과 여자부 가나영(행정 00, 70.8타)이 들어 올렸다. 준우승은 남자부 류재경(농공 91, 71.1타) 동문과 여자부 엄명희



〈남자부 우승 김래운 동문〉



〈여자부 우승 가나영 동문〉

(경영대학원, 71타)가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는 남자부 방성수(정의 82, 67타) 동문과 여자부 장경란(산업대학원, 70타) 동문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장타상 남자부는 권순택(산업대학원, 293m), 여자부는 김숙일(산업대학원, 208m), 근접상 남자부는 송종욱(토목 12, 1.4m), 여자부는 안선영(경영대학원, 3.6m)이 받았으며 버디상은 이교한(산업대학원), 과상은 박주형(경영대학원), 보기상은 김철희(산업대학원), 행운상은 최유리(토목 03) 등

이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 및 축하 행사는 전문MC인 조영구(회계 87) 동문의 노래와 진행으로 더욱 빛이 났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5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어 동문들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골프대회가 동문 간 소통과 상호 협력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총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기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동민 편집위원>

REAL INTERVIEW

##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을 만나다!



법학전문대학원 | 원장  
장석천 (법학 90)



### 최근 근황과 동문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저는 충북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를 마치고, 조교와 시간강사를 거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의 법과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충북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이후 많은 분들이 제게 주신 도움과 지원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저에게 많은 추억과 경험을 선사해 주었고, 그곳에서 만난 많은 동문들 또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교정에서 사회에서 많은 동문들을 만나고 있으며,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동문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충북대학교에서의 경험과 추억은 평생 간직될 것이며,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지면으로나마 동문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 학장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꿈을 품고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1학년 때에는 공부보다는 동기, 선배들과 대학의 분위기를 느끼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 후 2학년 때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의 대부분을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도서관에 나와 10시에 집에 가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절 도서관 휴게실이나 도서관 주변의 등나무 벤치에서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시절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군대 제대 후 학창 시절의 대부분은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이었고, 그다지 활동적이지도 않고 조용한 범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혹시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바꾸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부에 매달리는 나의 모습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학의 낭만도 느끼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위한 어학연수, 배낭여행, 다양한 알바 등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갖추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해 보고 싶습니다.

### 모교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는 감정이 남들과 다를 텐데요, 어떤 느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교에서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또한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모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함께 연구하며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교와

동문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사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모교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에 내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강의를 하시다 보면 힘이 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혹시 나만의 쉬는 공간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힘들고 잘되지 않을 때는 무작정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백두대간을 일주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무릎도 아프고 해서 등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쉬는 것이라면 연구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 방이 6층이라 농대 앞 푸른 잔디밭과 나무들이 바라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 요즘 대학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미래에 우리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것이고 그 일환이 학교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현시점에서는 통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리적인 중심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에 관한 논의를 보면 구성원들에게 통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

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에 대한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들 간의 진지한 논의와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될 때 통합 후에도 발전하는 충북대학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후배이자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 합니다. “학교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아니라 내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학교는 우리에게 최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진출해 어느 분야에서든 나의 입지를 굳건하게 한다면, 이로 인해서 충북대학교의 위상은 올라갈 것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대’보다는 ‘저 사람이 충북대학교를 졸업했대’라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충북대학교와 지금까지의 제 삶의 반 이상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충북대학교의 명암을 보았고, 제가 교수로서 재직하는 동안 많은 동문들의 도움도 받았으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대학교의 70년의 영광을 100년의 꿈으로 이루어내는 것, 우리 학교의 보다 나은 100년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문들에 대한 보답이고 지금까지 제 삶과 같이했고 앞으로도 같이할 우리 충북대학교를 위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강석 편집위원>

# 글로벌대학30 설명회 및 토론회



충북대학교는 2023년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본지정 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공동으로 신청한 이번 '글로벌대학30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양 대학의 통합 문제이다. 충북대학교가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이 있으므로 양 대학의 통합은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동문들과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학에서는 교내 및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대학30 사업 및 통합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교내 설명회

먼저 3월 21일에는 대학본부 3층 대강의실에서 글로벌대학30 사업 기반 대학 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1시 30분부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녁 6시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학생 대상 설명회는 총학생회가 개최하고 대학 본부가 참여하여 학생 자치기구와 협력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충북대는 지난 3월 11일에 공과대학을 시작으로 3월 21일까지 학내 모든 단과대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대학본부에서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까지의 통합 관련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을 학내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한 공감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고창섭 총장은 "이번 설명회는 학내 구성원에게 글로벌대학30 사업과 대학 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담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주 시민·동문 대상 설명회와 교직원·학생 대상 2차 설명회

6월 10일에는 청주 시민 및 동문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글로벌대학30 사업 설명 및 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 안내하고, 대학 통합이 지향해야 할 혁신적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은 충북대 교수회, 직원회, 총학생회 추천인과 지역 사회 관련 인사로 구성했으며, △신정규 법학과 교수 △최종호 직원회 사무국장 △안채환 총학생회장 △유광욱 청주시의회 의원 △황동민 총동문회 사무처장 △함창모 충북연구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장 등 6명이 참여했다.

또한, 자유 토론에서는 시민 등이 적극 참여하여 충북 지역의 중심인 청주에 통합대학 본부가 위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북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교명인 '충북대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 이어, 6월 11일에는 오후 4시부터 교원·직원·학생 대상으로 글로벌대학30 사업 및 통합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현재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통합 추진위원회 발대식 이후 실무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된 사항들에 관한 추가 질의가 이어졌으며 통합대학의 교명 선정, 유사·중복학과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일정 등 통합 추진과 관련한 구성원의 질문에 대해 우수동 기획처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섭 총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통해 교원, 직원, 학생들의 애교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양일간 제시된 의견과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활용하여 글로벌대학30 사업 및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의회 설명회

6월 10일에는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함께 양 대학의 글로벌대학30 주요 추진 사업 계획과 통합 추진 현황을 충북도의회와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충청북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대학은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 지역과 함께 세계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선도산업분야 혁신선도 인재 연간 1000명 양성 ▲거점대 취업률 1위 졸업생 지역 정주율 40% ▲QS 대학 평가 100위권대 진입 등 3대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8대 추진과제 및 32개 세부 과제 설명에 이어 대학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 실무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지역사회 설명회 개최 현황에 대해 보고했으며, 통합신청서 제출 등 향후 주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고창섭 총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

및 충북대-한국교통대 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충북도의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충청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충북 지역과 연계한 주요 현안인 양 대학의 통합은 지역 의회 및 지자체, 교육 관련 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로, 대학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생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의회 설명회

그리고 6월 20일에는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통합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은 대학의 글로벌대학30 사업 및 통합 추진 현황을 청주시의회와 공유하고 지역 사회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글로벌대학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충북대-한국교통대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유식 충북대 교무처장의 통합 추진 현황 설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합을 통한 혁신 극대화, 지역과 함께 세계로'라는 글로벌대학 비전에 따른 3대 추진 목표인 ▲지역선도산업분야 혁신선도 인재 연간 1,000명 양성 ▲거점대 취업률 1위 졸업생 지역 정주율 40% ▲QS 대학 평가 100위권대 진입과 목표 달성을 위한 8대 추진과제 및 32개 세부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 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역과 지역사회 공청회 개최 현황 등을 보고하였으며 통합신청서 제출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열 편집위원>

##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대학 통합 합의서 서명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합의했다. 지난 6월 28일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7층 U-Edu센터에서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윤승조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대학의 통합에 합의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양 대학은 대학 통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캠퍼스 총장제, 캠퍼스별 특성화 추진하고, 지역거점 국립대

학교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 통합을 위해 ▲「대학통합신청서」를 바탕으로 2027년 3월 1일 통합 ▲「대학 통합신청서」의 구체화 및 실행에 따른 통합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통합 실무단 구성 등에 합의했다.

이번 통합 합의는 2023년 5월 상호 협력과 양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발전협약'을 시작으로 8월 '단계적 통합원칙 합의', 2024년 2월 글로벌대학30 대도약 이행 협약 등을 거쳐 통합 추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날 서명한 합의서를 포함한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 충북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4,433명 입학



충북대학교는 2월 28일 오전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학부모, 교직원들의 축하 속에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대학 신입생 3150명, 대학원 신입생 1283명 등 총 4433명의 신입생과 대학 재학생 1만 3149명, 대학원 재학생 3114명 등 재학생 1만 6263명과 함께 2024학년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날 입학식은 고창섭 총장의 환영사와 박유식 교무처장이 학사 보고를 진행하고, 학생 대표인 의예과 김하민 학생이 선서를 통해 대학 생활의 포부와 의지를 다졌다.

고창섭 총장은 “학문적 탐구와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

주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스승의 적절한 가르침, 대학의 지원이 하나가 돼야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년 동안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통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확장하고 가치관을 넓히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우리 대학이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길 바란다. 충북대 전 교직원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 약학과 홍진태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홍진태 교수〉

약학과 홍진태 교수(약학 80)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지난 1월 25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홍진태 교수에게 ‘제 9분회-약학’ 분야 정회원으로 선출하고 회원인증을 수여했다.

홍진태 교수는 탁월한 학술연구 업적과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장, 기초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장 등의 국가 의학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업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24년 신입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 2024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국가거점국립대 중 최고

우리 대학교가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충원율 99.97%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29일 22시에 최종 마감된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원 내 입학정원 2,965명 중 2,964명이 등록했다.

이는 국가거점국립대학 중 최고 수준의 신입생 충원율로, 지난 2024학년도 정시모집 마감 결과도 6.01:1의 경쟁률을 보이며 국가거점국립대학 중 경쟁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충원율 저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학환경을 고려한다면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한편, 우리 대학은 오는 2025학년도부터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무전공제(전공자유선택제)’로 25%를 선발했다.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비율을 2027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총학생회, 출범과 함께 상생 활동 진행 무심천 플로깅, 클린캠퍼스 활동



〈총학생회 출범식〉

충북대학교 총학생회가 3월 13일 개신문화관 지하광장에서 총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4학년도 ‘개화’ 총학생회가 출범하며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창섭 총장을 비롯한 대학 간부진들과 총학생회 임원진 및 일반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화’ 총학생회는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무심천 체육공원 일대

에서 지역 상생을 위해 무심천을 중심으로 플로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청주김안과의원, 충북청주FC 등과 함께 진행해 지역과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발대식 행사 이후에는 캠퍼스를 돌며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쓰레기를 줍는 ‘클린캠퍼스’ 활동을 진행해 깨끗한 캠퍼스 문화 만들기에도 앞장서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섭 총장은 “총학생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총학생회의 건의로 천원의 아침밥, 이천원의 저녁밥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회를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의 결과”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며 학생회의 출범을 응원했다.

### 총학생회, 소축제 오월제 진행

충북대는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소축제인 ‘충북대 오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충북대 제56대 개화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학생, 교직원, 동문회 등 학내 구성원/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총학생회는 개신문화광장에서 다양한 부스를 설치한 부스존을 마련해 총학생회, 동아리, 외부업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으며, 푸드트럭존, 플리마켓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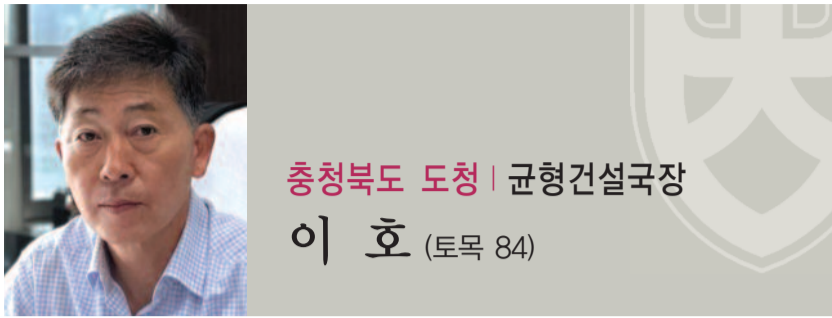
13일 오후 개회식/내빈 소개를 시작

으로 ▲동아리 공연 ▲상품추첨 이벤트 ▲연예인 축하무대 ▲EDM파티 등으로 진행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고창섭 총장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학생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 더욱더 활기를 더하고, 개인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라며 “Gap-Zero 시스템 구축으로 학생이 꿈을 이루고, 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자부심이 넘치는 대학을 만들겠다.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이 되도록 학생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충덕 편집위원〉





충청북도 도청 | 균형건설국장  
이 호 (토목 84)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청에서 균형건설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토목공학과 84학번 이호입니다. 자랑스러운 모교 동문들께 동문회보를 통해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충청북도청 균형건설국장으로 활동 중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지요?**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는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염원하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하여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국가철도 및 도로망 계획에 반영할 새로운 신규사업도 발굴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청 내 충북대 재직동문회장님으로도 활동 중이라 들었습니다. 재직동문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도청 내 직원의 약 40% 정도가 충북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임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인원으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령, 직급, 직렬별 등 다양한 그룹으로 동문의 소식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얼마 전 청주에서 증평까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2008년 청주와 충주 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10억 원을 국회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본래 대규모 SOC 사업은 그 모습과 효과를 들여다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공직생활을 마치고 전에 그 일부라도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국장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제가 입학했던 1984년도가 학생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이며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던 때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10명의 촌놈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이 만나면서도 주머니 속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멋지고 자랑스러운 친구들과 졸업할 때까지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셨던 한상훈 지도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재기 교수님 그리고 조교이셨던 이봉직 선배님(現 교통대 교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혹시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며 자기계발에 힘쓰고 싶습니다. 반대로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40년이 지난 지금도 형제같이 지내고 있는 대학 친구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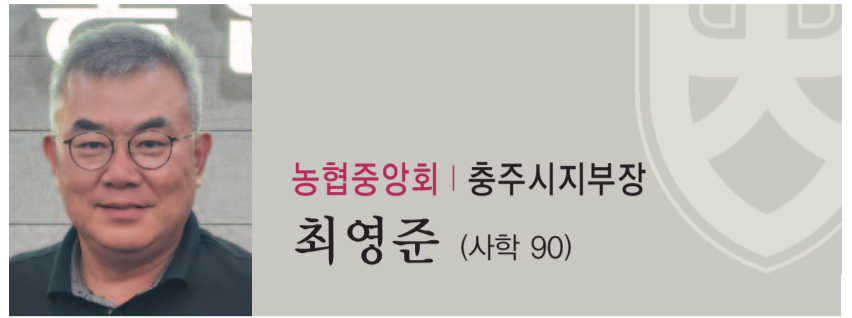
**대학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불어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통합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여 조속히 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북대학교 교명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충북대 동문들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충북 최고의 대학 동문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 충주시지부장  
최영준 (사학 90)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90학번 최영준입니다. 9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후 현재 농협 충주시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농협 충북대학교지점장으로 계시다가 농협 충주시지부장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지요.**

농협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농협을 총괄하는 단위조직으로서 이런 수익 창출을 위한 은행 업무는 물론 농업인실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부딪히며 농업 생산성 제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 그리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의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입사하여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97년 1월에 입사한 후 現사무소인 충주시지부에 신규직원으로 발령받아 2년 동안 서울시의 영업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02년에는 4급 승진 후 김포시지부, 중앙본부에서 13년 동안 근무를 마치고 3급 승진과 더불어 고향인 충주시 금고 충주시청(출)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5년간 중앙본부에서 팀장을 지내고 M급 승진과 더불어 농협 충북대학교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입사 후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어떤 기획(안)을 만든다든지, 시스템/프로세스를 만든다든지 보통 3~4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도 수행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농협 충주시지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부장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너무나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4년을 마치고 돈을 벌어야 했는데, 불행

히도 내가 선택한 전공은 내가 좋아하는 전공이었지만 나의 졸업 후 인생을 책임져 주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대학시절 특별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4년 내내 학과 공부를 등한시하고 취업 준비에만 열을 올리느라 교수님들과 친분이 별로 없었는데 농협중앙회 입사 준비 때 신원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흔쾌히 축하한다면 서 기꺼이 신원보증인이 되어 주신 이석린 교수님과 신영우 교수님(명예교수)이 유독 생각나고, 틈틈이 응원을 보내 주셨던 임병덕 교수님도 생각이 납니다.

**혹시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여행만큼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국내외의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쁘고 치열한 삶을 통해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고민을 할 것입니다.

**대학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더불어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대학 통합을 기점으로 충북대학교 전국의 지방거점 대학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대 동문들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학교에 근무하면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가 항상 아쉬웠습니다. 동문회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관심도 유도하기 위한 월회비 5,000원 납부(CMS)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협은행 6급 신규공채 충북 지역 합격자 중 약 60% 정도가 충북대학교 출신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입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열 편집위원>

### 2024 상임이사회 및 제70차 정기총회 개최 윤양택 총동문회장, 제34대 회장에 재추대



윤양택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이 33대에 이어 34대 회장에 재추대됐다.

총동문회는 지난 2월 23일 상임이사회 및 제70차 정기총회를 열고 윤양택 총동문회장을 제34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윤양택 회장(컴공 82)은 2022년 3월 16일 열린 충북대 총동문회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33대 회장에 추대되었다.

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3대 총동문회장을 맡아 2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동문회 운영 예산 대부분을 동문회비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들의 회비와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윤 회장은 “충북대학교는 글로벌 대학30 사업을 통해 세계대학평가 100위권의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

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는 한국교통대와의 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동문회와 학교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모교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동문회 건립 70주년을 준비하며 동문들을 위한 유대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대학교 총동문회는 감사로 송영주(컴공 84) 세무사와 허태영(통계 91) 충북대 교수를 선임 하였으며, 수석부회장으로 류근형(토목 86) (주)한일 대표이사를 위촉하였다.



<위촉식>

### 총동문회, “후배들아! 저녁 먹고 열공하자!” 학교발전기금 기탁



지난 2월 23일 총동문회가 상임이사회 및 제70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이천원의 저녁밥 사업에 활용해 달라며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상임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는 윤양택 총동문회장(컴공 82)이 총동문회 회장으로 재추대돼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흥장의 학생처장과 윤양택 총동문회장이 기탁 행사를 진행했다.

후배들을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기탁한 동문들을 대표해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충북대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세계대학평가 100위권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동문회가 함께 협력하겠다”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우리 후배들에게 저녁 먹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한다”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대동문회 제23차 정기총회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직 중인 KRC 충북대 동문회(회장 신홍섭)는 2024년 3월 29일 제23차 정기총회를 용정동 S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약 9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2023년 주요 활동사항 보고, 감사 및 결산보고, 승진 및 신입직원 축하 그리고 2024년

도 활동계획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2년간 동문회를 이끌 최현수(농공 86) 충북지역본부장을 회장으로 하는 회장단(부회장4, 감사1, 사무국장1)을 새로이 선출하였다.

신임 최현수 동문회장은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충북대 동문과 공사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동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각오를 전했다.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총동문회에서 농어촌공사동문회의 역할과 관심 어린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사와 동문의 발전을 기원한다” 라고 격려하였다.

### 토목공학부 동문회, 동문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토목공학부 동문회(회장 흥기남)는 지난 4월 27일 모교 소운동장에서 30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문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흥기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0여 년을 이어온 토목공학부 체육대회가 동문 간 교류를 통한 단합의 장이 되며, 토목공학부 발전의 초석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윤양택 총동문회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더불어 격려금을 전달했다.

### 2024 총학생회 소축제, ‘오월제’ 격려금 전달

총동문회 박흥찬 대외협력위원장은 5월 13일 18시부터 충북대학교 총학생회가 개최하는 오월제 축제 개회식에 참석하여 윤양택 총동문회장을 대신하여 축사와 더불어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 간담회 개최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6월 24일 분평동 모 식당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회장 최현수 본부장)와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재직동문회에서는 최현수 본부장(회장), 류영선 청주지사장, 배화진 부장, 이범준 부장, 장윤희 차장(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총동문회에서는 윤양택 회장,



김선각 상임이사, 황동민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 자문위원회 간담회 개최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은 8월 12일 12시에 운천동 모 식당에서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나누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류태기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총동문회 및 모교 현안문제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있었다.

충북대학교 ROTC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ROTC 격려금 전달〉

충북대학교 ROTC 총동문회는 지난 3월 23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목적홀에서 통합 총동문회 출범식과 통합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충북대학교 학군단은 본교와 재경, 두 군데로 나뉘어서 별도의 총동문회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동문들 사이에서 통합 요구가 제기되어 오던 중 올해 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통합 동문회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재호(4기), 정동주(5기), 지용만(7기), 김홍일(10기) 동문 등 충북대 학군단의 발전의 초석을 다진 선배들과 역대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특히 30기 이후 기수들이 60여 명 대거 참석하여 젊고 역동적인 충북대 학군단의 위상을 자랑했다. 또한 후보생들이 준비한 학군단 동문 환영행사에는 60년 학군단 역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감동의 순간이 연출됐다.

외빈으로는 충북대 총동문회 윤양택 회장, 반경남 중앙회 선임상근부회장(22기)을 비롯 ROTC 충북지구회

이진희 회장(22기), 차기회장 지용호(23기), 장희열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32기), 청주대 ROTC 총동문회 김진홍 회장(19기), 김덕환 26기 총동기회장, 진기방(26기) 해병 ROTC 총동문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신임 김윤영 회장(26기)은 “총동문회 통합을 위해 애써주신 이임 박래원 회장(23기)을 비롯한 본교와 모든 동문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젊은 후배들이 움직이는 총동문회, 소모임이 활성화되는 총동문회, 재미있는 일 가득한 총동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사를 남겼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통합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충북대 ROTC 총동문회의 새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자리잡은 ROTC 동문들이 총동문회 발전에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충북대학교 학군단은 1964년 4기 후보생들의 입단과 함께 창설되어 올해 62기까지 3,725명의 ROTC 동문을 배출하였다.



민주동우회, 제31주년 가족 한마당 개최



충북대학교 민주동우회(회장 석웅희)는 지난 6월 6일 모교 야외공연장(제2학생회관 앞 탈마당)에서 2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사전 놀이마당, 점심

식사, 여는 마당, 가족 한마당, 닫는 마당 순으로 개최되었으며, 석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동우회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다짐하였다.

또한 가족 한마당에서는 가족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회원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민주동우회 제31주년 가족 한마당을 위해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윤양택 총동문회장을 대신하여 박흥찬 대외협력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축사와 더불어 격려금을 전달했다.

충북대학교,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5명 배출

엄태영 · 이광희 · 이강일 · 송재봉 · 신장식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북대학교가 총 5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엄태영 당선인(화공 77)은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해 49.43%로 당선됐다. 제천시의회원과 제천시장을 역임하고 제21대 국회에 진출했던 엄 의원은 이번 승리로 재선 고지에 올랐다.

청주 서원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광희 당선인(농생물 82)은 52.46%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광희 당선인은 충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충청북도 제9, 10대 도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선거에 앞서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청주 상당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강일 당선인(경영 87)은 51.4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강일 당선인은 2002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최연소로 당선된 경력이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주 청원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재봉 당선인(행정 대학원)은 53.2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송 당선인은 지역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2년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후보로 나서며 정치에 입문했고 당시 재선을 노리던 같은 당 한범덕 전청주시장을 제치고 공천장을 따내는 이변을 연출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신장식 당선인(법학전문대학원)은 충북대 출신 5명의 당선자 중 유일하게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신 당선인은 청주 출생으로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사회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2월 조국신당 인재영입 1호로 입당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은 “이번 총선은 개교 이래 최대 인원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쾌거로서 20여만 동문들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모교와 지역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현수막 게시



총동문회(회장 윤양택)는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5명의 동문들을 축하하고 학내외로 홍보하기 위해 정문 옆 법학전문대학원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대형 현수막 게시는 동문 당선인들의 학내 홍보와 더불어 청주시민들에게도 큰 홍보가 되었다.

〈황동민 편집위원〉

제34대 임원명단

회장 윤양택 컴공 82 수석부회장 류근형 토목 86 감사 송영주 전산 84 허태영 통계 91 사무처장 황동민 안전 87

자문위원

위원장 류태기 체육교육 61 김태훈 화공 70 송범헌 농학 73 임창재 농학 64 최한기 체육교육 72
곽정수 농공 63 김현준 체육교육 63 연광석 농공 64 정동주 농학 63 한종구 국어교육 72
김광렬 화공 71 박동준 영어교육 73 유무웅 체육교육 61 정상길 농학 64
김내수 축산 68 박인성 행정대학원 이종근 체육교육 70 정상혁 입학 60
김병동 체육교육 64 변상권 영어교육 70 이훈 축산 63 정찬문 연초 72
김윤배 약학 73 석영선 연초 68 임상화 약학 70 조성찬 농공 69

부회장

고근석 법학 84 박경국 농경 77 심우용 경제 87 이인호 컴공 82 장윤석 식품 82
권용봉 건축 82 박영순 토목 84 양승덕 의학 85 이욱희 대학원 정석기 의학 90
김동식 건축 84 박완희 정보 92 엄태영 화공 77 이재신 법학 86 조기식 무역 79
김동완 중문 81 박종서 토목 80 연경환 경제 81 이진명 약학 96 이종학 국어교육 84 조남훈 산업대학원
김사석 체육교육 81 박종진 체육교육 82 유상용 제약 86 이종학 국어교육 84 조성록 입학 82
김응규 행정 86 변은영 정의 88 유용철 회계 91 이차영 행정 79 최병윤 건축 80
김종복 산업대학원 송재봉 행정대학원 윤종민 법학 81 이호 토목 84 이현우 토목 86 최태호 입학 79
김진균 체육교육 81 신동엽 무역 82 이광희 농생물 82 이현우 토목 86 최현호 법학 81
김제홍 전기 84 신태수 약학 84 이강일 경영 87 임병운 지역건설 14 흥기남 토목 89
김진상 토목 79 석웅희 축산 87 이동범 토목 87 장동석 제약 96 홍종갑 법학 91
김철문 법학 85 신장식 법학전문대학원 이범석 행정 85 장석천 법학 90 황주상 영문 88
노동영 법학 97 신호섭 행정 88 이원배 산업대학원 장수정 산업대학원 황영호 행정 80

상임이사

곽종국 농기계 84 김영관 사학 85 박영석 의학 93 안광국 토목 85 이태열 법학전문대학원
구민형 경영대학원 김요식 화공 78 박종국 의학 85 우선희 농학 80 임달호 무역 84
권명중 축산 08 김은영 가정교육 86 변기철 경영대학원 윤병인 대학원 최보연 대학원
권순동 경영 87 김응운 경영 96 변성훈 대학원 이강우 경영대학원 최성호 축산 91
김경민 경영대학원 김정희 미술교육 78 서정욱 입학 90 이기수 미술교육 82 최영준 사학 90
김기동 생물 82 김준오 경영 07 신광균 전기 94 이범홍 무역 87 최유리 토목 03
김길하 농생물 79 김찬중 경영 82 신의섭 철학 81 이성우 건축 86 흥진태 약학 80
김두환 체육 98 김태석 정의 87 신현구 경제 82 이영노 컴공 86 황운서 경제 82
김상혁 천문우주 91 김환진 경영대학원 신홍섭 경영 84 이재영 경제 91 이진희 건축 80
김선각 대학원 맹승진 농공 86 신창범 무역 95 이호진 토목 93
김선희 천문우주 92 박수진 경영대학원 신화수 경영 89

대의협력위원회

위원장 박흠찬 수학 83 위원 김민성 법무대학원 김정식 환경 97 연일수 경영대학원 이현희 수학 95
김선희 천문우주 92 김선희 천문우주 92 성기욱 도시공 07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필재 공법 89 위원 김미숙 국제경영 98 이태열 법학전문대학원

임원회비 · 동문회비 ·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24. 8. 29. 기준)

- 회 장: 윤양택 2,000만 원
부회장: 60만 원
고근석 권용봉 김동식 김동완 김사석 김진균 김진상 박경국 박종서 연경환 유용철 이재신 이전명 이종학 이 호 조남훈 최병윤 흥기남 이욱희 이차영 장윤식 장수정
평생회비(납부순): 30만 원
오경숙(국문 88) 배혜영(경영원)
년 회 비(납부순)
김선겸(대학원) 김영선(정의 93): 각 10만 원
최현구(법무대학원) 이정익(농기계 89) 김은영(경영 04): 각 6만 원
특별후원금
박영석(의학 93) 의과대학동문회: 각 100만 원
상임이사: 30만 원
김선희 김영관 김준오 맹승진 박영석 신홍섭 윤병인 임달호 이영노 최보연 변성훈 안광국 신현구 변기철 최영준 김길하
CMS 납부 동문
곽노환 권순영 고진환 공셋별 강수연 강인권 김강래 김규순 김도유 김도용 김래윤 김선우 김시흥 김상훈 김연오 김화실 류선희 류호영 류호철 문다영 문아영 박성규 박현경 배 훈 송종근 신동주 신보경 신일현 신은주 신현지 어강석 인혜영 임효섭 윤이숙 이문규 이수자 이영봉 이주연 이재근 이재영 이철기 이해옥 장기우 장우원 황동민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 시 성명·학과·입학연도 입력 요망!! 연회비 6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이상

농협 301-0229-7165-71(예금주: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문의 043-261-3121

국회의원 엄태영 의원 (화공 77)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 화학공학과 77학번 엄태영입니다.

먼저 모교 선배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나라와 충북 발전을 위해 일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역 패싱’ 사건입니다. 앞으로 재선 임기 중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제천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고속화 사업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천·단양을 ‘한반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하셨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포부와 활동 계획이 있다면?

집권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서는 나라와 충북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듭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중고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지는 만큼 팍팍해진 민생을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 재선 국회의원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충북과 제천·단양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1991년 초대 제천시의회에 33세의 나이로 ‘충북 최연소 당선’이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제가 공직에 입문하게 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뛰어 보자’는 다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재선 시의원을 거쳐 제천시장 8년을 역임한 뒤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주어진 자리의 무게를 생각하며 나라와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등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제천시장을 역임하면서 제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소통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나아가 ‘제천 국제한방BIO 엑스포’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으로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제천 바이오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천 학사’를 건립하고 ‘인재육성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일은 5년 전 정부와 충북도가 추진했던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서 제천역을 제외한 이른바

힘든 고비도 많으셨을텐데,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좌우명이 있다면?

“나는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제가 걸어온 인생 여정에서도 무수한 고비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성공은 없다’는 좌우명은 고비와 난관에도 오통이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충북대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해 주세요.

3·4학년들을 줄곧 과대표를 하면서 학교와 교수님과 학생 간에 가교 역할을 하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워 왔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현실정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대학이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충북대학교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를 위해선 동문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소위 ‘나 때는~’으로 시작된 조언보다는, 충북대 동문 선배의 한 사람으로 항상 여러분을 ‘무한히 응원’하고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후배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황동민 편집위원〉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 (농생물 82)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 여러분. 충북대 농생물학과 82학번 이광희입니다.

충북대에 입학하게 된 건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삶과 생각이 바뀌었고,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동문 여러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충북대학교 대학원도 다니게 되었고, 산림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행안위를 들어간 이유와 행안위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행정안전부는 재난과 재해, 경찰청은 범죄와 생활, 소방은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가 그 기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 사각지대가 있다면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공평 2지하차도가 빗물에 침수되며 14명의 이웃이, 가족이 세상을 떠난 ‘오송 지하차도참사’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참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실로 발생했고, 대처도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위원이 되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 정부 기관 내에 생명 존중의 가치를 깊이 심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학생운동을 했고, 시민운동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남2지구 원흥이방죽 지키기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수만여 명의 서명이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시민 권력은 정치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한마디에 행정 권력이 움직였습니다. 정치 권력은 강했고, 효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되고 싶었고, 2010년 처음 도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8년간 도의원으로 일하며 지역 곳곳을 찾아 시민을 만나고, 그 속에서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시민의 인정과 응원 덕분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등원하자마자 두 개의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청주시 가정법원 설치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내 확대 설치’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사를 내주었고, 마침 저에게 찾아와 제안을 해주신 학부모께서도 기사를 보시고 지역 사무소에 찾아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충북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저희 부모님은 영등포 시장통에서 김밥집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수입이 넉넉치 않으셨는데도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성적 보다는 학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국립대학인 충북대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시절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저는 충북대 부총장이었습니다. 당시 충북대의과대는 있었는데 병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건립을 요구하며 총장실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나흘째 병원건립을 약속받으며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학생처장님이 총학생회 임원들에게 삼겹살에 갈매기살을 사주셨는데 굶은 상태에서 몇점 먹은 게 탈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지역사회의 거점대학으로 중심대학으로 지금처럼 남아있는 것 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갈수록 어려운 고등교육을 지켜가며 더 많은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제가 충북대로부터 경험하고 얻은 게 많아서인지 동문들과 후배들의 인생에도 도움되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국회의원 이강일 의원 (경영 87)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대 졸업생 이강일입니다.

동문들께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진리, 정의, 개척'의 모교 정신으로 항상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요?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금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기업의 거래 관계를 규율·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영부인의 디올백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국민권익위원회, 민족정기와 국가관을 정립하는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등을 관할합니다.

제가 집중하는 영역은 민생부문인데, 정무위는 민생의 제1전선을 형성하는 정책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청년 정책금융, 서민금융 등 금리를 포함한 금융 정책은 민생 전반에 넓게 영향을 끼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지역에서의 청년 정치에 너무 많은 난관이 있다는 판단에 단신으로 상경하였고 학생운동 과정에서 소통하던 선배님들의 권유로 청년 정치인 김영춘(전 해수부장관)과 함께 정치 노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김영춘(당시 국회의원) 선배님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하여 2002년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현실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정치를 떠나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10여 년을 복무하다가 몇 년 전 정치에 복귀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2022년 경기도 인수위(당선자 김동연)에서 활동할 때, 청주시 상당구의 지역위원장에 응모하라는 권유를 받으면서 큰 고심을 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으로 선거 구도가 불리하고, 충북지역 민주당도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강한 계파가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시간이 불과 보름밖에 주어지지 않아 큰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랫동안

준비하고 활동하신 분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지역위원장이 되어 이후 새로운 정치문화를 직접 실천한 덕분에 2024년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총선을 거쳐 국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시대정신과 진심 어린 노력이 있으면 당원과 시민들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싶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든 고비도 많으셨을텐데,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좌우명이 있다면?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삶의 원동력은 가족과 저 자신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조금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꾸준히 준비할 수 있었고 관심 있는 분야는 그 근본을 파헤칠 때까지 매달렸습니다.

충북대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 해 주세요.

바쁜 나날 속에서 그룹을 결성하여 2년 가까이 음악 활동하였던 것이 삶의 잔잔한 에피소드이지요.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개신인 모두가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일구어 나가면, 준비한 사회인으로서 스스로와 모교를 빛내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잘 해결되고, 반도체 관련 중심 연구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좌절하고 좌충우돌하는 내 모습에 우울해하기보다, 역경을 헤쳐내고 한층 성장할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앞길을 멋지게 꾸려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황동민 편집위원>

국회의원 송재봉 의원 (행정대학원)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에서 청주 청원구 지역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송재봉(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입니다. 동문 회보를 통해 모교인 충북대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요?

우리나라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 공공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성장시키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특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또 적시에 충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보호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셨는지요?

1987년 우리나라에 민주화의 바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대 초반을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충북시민회를 시작으로 25년 동안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청와대에서 사회조정기획실, 제도개혁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며, 정부 혁신과 지역 혁신을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운동과 청와대 근무를 하며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고,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요?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

습니다. 보람있는 일은 지역의 카지노 입점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팬데믹 이후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등 지역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한 것이 큰 보람입니다.

충북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대학 졸업 후 조금 더 준비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충북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학문적으로 더 넓고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때의 배움이 오늘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는 지금까지 많은 인재들을 양성했고, 그 인재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충북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교육들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대학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찬란한 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평생의 지표가 정해진다면 도전은 두렵지 않고, 실패는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충북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충북대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길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국회의원 신장식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 동문들에게 인사(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사람 신장식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생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청주에 거주하십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입학 후 여러 벗들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자고 목청껏 외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거촌에서 가진 것 없는 철거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돈 없는 사람도 당연히 배우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했고, 여러 차례 낙선을 반복했고, 제법 늦은 나이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2010년)해서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치가 사회에 기여 할 것이 많다는 믿음으로 2016년 정당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생활과 라디오 시사프로 진행자로서 삶을 병행하며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던 중 2024년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했고 당선 되었습니다.

요즈음엔 예상보다도 훨씬 고된 의정활동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신 것에 대한 소감과 현재 국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앞서 소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낙선을 했습니다. 1998년 지방선거부터 출마를 했으니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26년이 걸렸네요.

처음엔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정의당이 원외가 되면서 과거 진보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훨씬 더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앞서 인사말에도 짧게 썼지만 대학 때 학생운동과 철거반대투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손잡게 되었습니다.

과거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신장식의 신장개업> 첫 방송부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마지막 방송까지 매일 직접 그날의 논평을 썼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수도승처럼 집과 수영장과 방송국만 오가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신장식의 오늘'을 쓰면서 그날의 방송을 준비하고 주요 이슈를 정리 했죠. 그 일부를 추려서 '두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출간했습니다. 즐저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힘든 고비도 많으셨을텐데,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자신만의 좌우명이 있다면?

신장개업을 그만 둘 때와 뉴스하이킥을 그만 둘 때 두 번 씩이나 인용한 시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 들이는 평온을 주시옵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늘 그 둘을 구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트 니부어의 기도문)

충북대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충북대학생들이 외치는 구호소리를 듣고, 체류탄 가스를 맡으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로스쿨에 가야겠다고 결심 했을 당시 충북대학교를 당연히 우선으로 생각했으며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전공에 상관 없이 모든 동문님들과 후배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인 이다 보니 이 말씀 안드릴 수가 없군요. 조국혁신당과 저 신장식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 보내주세요!  
<황동민 편집위원>

충청북도의회 이양섭 의장 (지역건설 13)

충북대 동문들에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13학번 이양섭입니다. 저는 7월 1일 제12대 하반기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해 충청북도의회를 잘 이끌어 가기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후반기 충북도의회장으로 선출돼 활동중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지요?

지방의회의 첫 번째 역할은 주민이 부여하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의장에 취임하면서 '도민을 섬기며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의장으로서 34명의 도의원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을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건설적인 견제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나요?

이웃과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진천군 푸드뱅크 회장, 충북지구JC 지구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인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2010년 도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했지만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재도전해서 당선되고, 2018년 또다시 떨어진 뒤 2022년 다시 당선되는 등 당락을 거듭한 걸 보면 정말 정치의 길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던 일이나 아쉬웠던 일,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

처음 도의원이 됐던 2014년에 지역구의 시골집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의 전소된 집 재건을 도왔던 기억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재 피해 집을 재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다 지인을 소개해 저렴한 가격의 리모델링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짓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주민분은 그 당시 도움에 대해 너무 고맙다면서 가끔씩 인사를 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충북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대학 시절은 어땠나요?

대학 시절 내내 일하며 공부하느라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열정과 노력의 연속으로 제 자신이 더욱 단단해지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 교수님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늦깎이 대학교 신입생으로 저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어색하게 저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를때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활을 하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맹승진 지도교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신념을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충북대는 충북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충북대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충북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동문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모교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청춘이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우 편집위원>

수의과대학, 제 68회 수의사국가 시험 전원 합격 쾌거



수의과대학이 2024년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관한 제68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응시생 45명이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제68회 수의사 국가시험은 국내·외 대학에서 536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515명이 합격해 96.8%의 합격률을 보였다.

수의대는 지난 1993년 첫 졸업생들이 치른 제37회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최상위권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8년 이상명(94), 2006년 김수경(02), 2010년 강효민(06), 2021년 장명근(17) 학생이 전국 수석을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천문우주학과 강길구, 조아라씨, 2023과학기술문화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 최우수상 수상



천문우주학과 강길구(석사 1년), 조아라씨(통합과정 2년, 지도교수 김용기)가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 영상 콘텐츠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길구, 조아라씨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진행한 '과학 문화 전문 인력 양성' 콘텐츠 디벨로퍼 기초 과정을 수료해 지난 해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진행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에 영상 콘텐츠 부문으로 최종 선발됐다.

11월 25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 과학문화산업 소통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의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CBNU 국제봉사단, 네팔에서 글로벌 봉사 정신 펼쳐



충북대학교 국제봉사단이 지난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네팔 리빙스톤 아카데미에서 글로벌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회계 지원을 받아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의과대학, 약학대학, 인문대학,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학생과 교수, 직원 등 34명으로 구성된 충북대 국제봉사단은 네팔 카트만두에 위치한 리빙스톤 아카데미에서 500여 명의 리빙스톤 아카데미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물로켓 발사실험, 담배·마약 예방 교육, 성교육, K-pop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교육봉사를 진행했으며, 혈액형 검사, 시력 검사, 소변 검사 등의 신체검사도 제공했다.

또한,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혈압, 허리둘레, 지질 검사, 혈당검사 등을 실시하며 대사 증후군 검사와 건강교육도 제공했다.

간호학과, 9년 연속 간호사 국가 시험 100% 합격



간호학과 학생들이 지난 1월 19일에 진행된 '제6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생 59명이 전원 합격했다. 이로써 충북대는 지난 2016년 간호학과 첫 졸업생 배출 이후 9년 연속 전원 국가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간호학과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간호인을 양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활한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위한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하고, NOVA APERIO 시뮬레이션 센터(simulation center)를 개소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앞서왔다. 또한, 학생들의 개별 및 팀참여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자율학습실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조교노동조합 충북대지회 '이천원의 저녁밥' 후원



학생들을 위한 '이천원의 저녁밥'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충북대지회가 3월 6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5층 접견실에서 '이천원의 저녁밥'을 위해 써달라며 5백만원을 기탁했다.

이 날 기탁식에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충북대지회(이하 조교노조 충북대지회)의 박준영 회장, 진선화 부회장, 손용기 사무국장과 고창섭 총장, 홍장의 학생처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 동문이기도 한 박준영 조교노조 충북대지회장(임학 94)은 "학생들의 건강한 저녁 식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교노조 충북대지회 회원의 성의를 모아 이천원의 저녁밥 모금 캠페인에 동참한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상반기 채용설명회·채용상담회 학생들에 큰 호응



지난 3월 4일 (주)에코프로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채용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3주차인 3월 22일까지 14개 기업에서 채용설명회를 진행, 62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우리 대학은 개강 이후 (주)에코프로,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우수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채용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비전과 주요 사업, 모집분야, 채용 프로세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채용계획 등 인력 채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등 호평을 받았다. 오명민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상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각 기업의 수요와 채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채용설명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며 "충북대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후 입사서류 작성과 채용 지원 시 겪는 어려움은 진로 및 취업 상담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크리에이티브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지난 겨울방학 동안 국립대학육성 사업을 활용해 중앙도서관, 학생생활관, 단과대학 강의실, 정독실, 화장실 등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 6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앙도서관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탈바꿈했다. 고창섭 총장의 핵심 공약인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역량과 학생의 준비역량 간 차이를 줄이는 갭 제로(Gap-Zero)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진로설정-현장실습-취업준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그간 분산되어 있던 진로 및 취업 관련 부서를 한곳으로 모아 학생들의 접근성이 우수한 도서관 1층으로 이전 배치했다.

이를 위해 충북대는 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겨울방학인 지난 2023년 12월

부터 2월까지 진로취업부, 대학일자리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진로·취업 관련 부서를 이전하고, 학생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했다. 도서관 1층에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에는 3개의 담당부서, 상담실 6개와 식물이 있는 스터디카페를 마련해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과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대는 이를 통해 국가거점국립대 중 최상위 취업률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심터로 초대합니다! 오송역 홍보관 리뉴얼 재개관



충북대학교가 KTX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온 충북대 북카페 겸 홍보관을 리뉴얼해 재개관했다.

충북대는 지난해 9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낡고 오래된 시설(34%)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개인 휴식공간(59%), 회의공간 보완(13%)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간을 설계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부 시설의 최신화를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거점국립대학으로써 오송역 이용객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나눔 공동체로서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에 앞장선다.

수의과대학, 농식품부 과학기술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사업 선정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3월 22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 연구인력 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57억원의 국비 예산이 지원되며, 지역산업체 공동연구를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도 2억5천만원의 대응자금과 충북대 산학협력단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61억원 규모의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관기관인 충북대는 전남대 및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각 대학 수의학과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을 대상으로 동물의료·ICT 융합 과정을 신설하여 석사급 전문가 양성과 함께 그린바이오 신산업 창출 분야인 동물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선도기술 개발 및 글로벌 산학 교육·연구 연계 과정을 운영한다.

간호학과 대학원 졸업생 일동, 후배들을 위하여 발전기금 1천 1백만원



후배들을 사랑하는 간호학과 선배들의 발전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3월 29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2024학년도 간호학과 석·박사 졸업생 8명(공승연, 김경미, 김세원, 김영은, 김희선, 노보란, 이지혜, 송지원)이 학과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 날 기탁식에는 졸업생을 대표해 박사과정 졸업생인 공승연, 김경미, 이지혜 씨가 참석했으며, 고창섭 총장, 황재훈 대외협력본부장, 김은경 입학본부장(간호학과 교수), 박형란 간호학과장, 간호학과 조미경 교수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기탁은 간호학과를 졸업하는 선배들이 후배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소프트테니스부, 제102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 2연패



소프트테니스부(정정일, 설윤수, 김상익, 문정인, 김계민, 김두현, 김세준, 임현우, 지도교수: 최종환, 감독: 안동일)가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경상북도 문경시에서 열리는 '제102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충북대 소프트테니스부는 결승에서 공주대를 2:1로 제압하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으로 지난해에 이어 단체전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검도부,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 획득



검도부(지도교수: 임용석, 감독: 민병주) 나영진, 김상혁, 윤두현, 성민재, 송태영, 이연석, 지우석 학생이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제46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충북대 검도부는 단체전에서 대구대, 제주대를 이기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초당대에게 아쉽게 패하며 이번 대회를 마감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물관, 청주혜원학교와 교실 박진로체험 'GO! GO! 고고학' 진행



박물관이 5월 21일 청주혜원학교 중학교 2학년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GO! GO!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GO! GO! 고고학'에서는 충북대 박물관의 상설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내가 만드는 선사유물-곡옥만들기'와 '활쏘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구석기시대 이해를 돕고 직접 선사시대 생활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GO! GO! 고고학'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물관 상설 전시를 관람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테니스부 심혜원 학생, 제79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혼합복식 금메달 획득



테니스부 심혜원(체육교육과 1학년, 지도교수: 김현주, 감독: 채경이) 학생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79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심혜원 학생은 울산대의 김민준 학생과 조를 이뤄 16강부터 경기를 진행했으며, 우수한 실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하여 최지우(충남대)-박재상(명지대)조를 2대0으로 누르고 혼합복식 정상을 차지했다.

Clothoid-R팀, 2024 자율주행로봇레이스대회 최우수상 수상



Clothoid-R팀이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오창캠퍼스 C-트랙에서 개최된 자율주행 로봇레이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4 자율주행 로봇레이스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능로봇공학과, 전자공학부 학생으로 구성된 Clothoid-R팀(정준범, 이지원, 김민기, 정인영, 유태현, 유인석, 김진일, 윤수한, 장주아, 지도교수 기석철)은 구성 예선전에서 2위로 최종 결선에 나섰다. 결선에서는 카메라와 리복스(Livox) 라이다를 동시에 사용하는 인지방식을

사용해 더 정확한 인지 알고리즘을 완성했고, 벨로다인(Velodyne) 라이다를 활용해 옆차선까지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오버테이큰(Overtaken) 알고리즘의 역할로 2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대,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최종 선정



우리 대학이 최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 6월부터 오는 2029년 5월까지 5년간 국비 및 대학대응자금 85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대학의 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에 유치하고, 대학-기업-연구소 간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업지원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향후 5년간 개신캠퍼스의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과 오창캠퍼스의 융합기술원에 첨단바이오·ICT 융복합 첨단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해 충북산업생태계를 견인하는 산학연융합거버넌스 구축 및 대학 중심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주력산업 기업육성 및 성장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학과 박영석 교수, 삼차신경통 주제로 네이처 리뷰(Nature review disease primer)에 논문 발표



의학과 박영석 교수가 지난 5월 30일자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리뷰(Nature review disease primer)에 삼차신경통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책임저자에 미국 하버드대 아쉬나 교수(Sait Ashina교수)가 삼차신경통 연구의 전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공동 집필한 것으로 'Trigeminal neuralgia'이란 제목으로 발표됐으며, 박영석 교수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교수 중 유일하게 집필진으로 참여해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박영석 교수는 "이번 기회로 우수한 연구진과 함께 삼차신경통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삼차신경통 연구를 바탕으로 난치성 뇌질환 연구에 지속적으로 도전하여 좋은 임상 및 기초 의과학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타요이글스 팀, 'F1 Tenth 그랑프리 자율주행대회' 준우승



지능로봇공학과 로보틱스연구실(지도교수 박태형)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타요이글스팀(TaYo Eagles, 팀장: 김민성, 팀원: 황찬호, 임나영, 권도현)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8회 F1 Tenth 그랑프리 자율주행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예선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트랙을 완주한 16팀들이 본선에서 토너먼트 방식의 일대일 레이싱으로 승부를 겨뤘다. 타요이글스 팀은 예선을 1위로 통과하였으며, 본선에서는 여러 강팀들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여 준우승을 차지했다.

충북양자연구센터 설립...충북 최초 양자연구센터 개소



우리 대학이 충북도청과 협업해 충북 양자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지난 7월 2일 충북도청과 양자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북양자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충북양자연구센터는 우리 대학 내에 사무실 및 연구실을 개소했으며, 앞으로 ICT연구센터를 통해 양자기술을 가진 우수한 연구자를 양성하고, 더불어 도내 대학 간 실습연계과정, 기업체 재직자 교육, 특성화고 대상 맞춤형 특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도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TRC) 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2024년도 대학ICT연구센터육성지원사업(ITRC)'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ICT 유망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은 '양자 ICT 고도화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양자물질/소자 이미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주제로 양자 기술 플랫폼 연구센터(센터장 물리학과 김기웅 교수)를 제안해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간 37.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박준영 편집위원>

화제의 인물



강희진 (기계 87)

| 공장장 |

먼저 동문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기계공학과 87학번 졸업생 강희진입니다. 현재 깨끗한나라 청주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깨끗한나라 청주공장 공장장이신데, 회사 소개와 전반적인 직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깨끗한나라는 1966년 대한펄프공업주식회사를 시작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 최첨단 자동화 설비 및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종이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제지업체입니다. PS(Paper Solution) 사업부는 연간 45만 톤 규모로 국내 최고 수준의 백판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창사 이래 축적된 탁월한 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산업용지, 식품용지를 생산하는 사업부입니다. HL(Home&Life)사업부는 건강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한 생활용품을 통해 고객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화장지, 키친타올, 생리대, 기저귀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부입니다. 청주공장은 깨끗한나라의 대표 공장으로서 PS, HL사업부의 생산 제품의 전체 90% 이상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장입니다. 저는 청주공장장

으로서 공장 총괄 업무와 안전총괄 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공장자동화 및 시스템 개선 활동,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ESG 경영 실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입사하여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993년에 깨끗한나라에 입사하여 생산, 개발, 공장관리 등을 역임하여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공장자동화 및 시스템 개선 활동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저 자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좋은 선배들과 동기들 덕분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계속 발전해 나감에 따라 공장 증설, 신설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제 업무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계기로 청주공장 부공장장을 거쳐, 음성공장 공장장, 지금에 이르러 청주공장 공장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그 덕분에 안전, 생산, 지원, 원가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을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회사 입사 후 어떤 때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2018년 처음 음성공장이 준공되어 공장장으로 발령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음성은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고, 모든 것이 새롭게 기반을 구축해야 하였으며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선배나 동료의 조언을 통해 슬기롭게 헤쳐나갔고, 공장 안정화를 통하여 나 자신이 총괄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는 첫 번째 사업장이라는 자긍심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청주공장에서 또한 공장 안정화와 안전 환경에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으며 현재 까지 업무를 계속하는데 있어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활 철학은 무엇이며,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 어떤 아버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입사한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좋은 선배 및 동기들의 조언과 격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친구와 같은 모습이 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나면 산책을 자주 다니곤 하는데 아이들이 취업하면서 산책을 자주 못하는데 요즘 들어서 더 아쉬기도 합니다. 대신에 2주에 한 번씩은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친구처럼 아내와 아이와 지내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기억에 남는 일이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여행, 체험학습, 운동, 아르바이트 경험과 같이 여러 활동들을 친구들과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전공 과제 발표 시간을 적극적으로 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발표를 하다 보니 이 계기를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기업체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충고가 있다면?

저 또한 취업 당시에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기계공학과에 대한 직무를 살리면서 제조업 분야의 회사를 들어가고자 생각했던 점 하나만큼은 명확한 목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취업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와 더불어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에 취업한다면 어떤 업무를 내 특기를 살려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충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학업, 어학과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총동문회나 모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홍보활동 강화로 총동문회가 활성화되어 충북대학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해외 교육봉사, 어학연수 등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황동민 편집위원>





## 보험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재정적 안정과 성장의 핵심 요소

고객들은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재무설계는 이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세금 계획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무 목표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설계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 # 재무설계의 중요성

재무설계는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한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 1. 목표 설정

재무설계의 첫 단계는 단기 및 장기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기 목표는 예비비 마련, 단기 여행 자금 조성, 단기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장기 목표는 부동산 투자, 자녀 교육비 마련, 은퇴 후 생활자금 준비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재정 계획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동기 부여의 역할을 합니다.

#### 2. 현금 흐름 관리

체계적인 수입 및 지출 관리는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재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고 줄임으로써, 저축 및 투자에 할당할 수 있는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 관리는 재정 계획의 핵심을 이루며, 설정한 재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 3. 저축 및 투자

저축 및 투자 전략은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축은 재무 안정성의 기초를 제공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저비용 분산 투자 옵션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4. 위험 관리

재무설계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및 다양한 위험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재무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헤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 상품을 통해 사망,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5. 세금 계획

세금 계획은 재무설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체적인 재정 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퇴직연금(IRP)나 연금저축을 통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세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세금 계획의 핵심 요소

세금 계획은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 1. 세액 공제 및 감면

다양한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절세 전략

장기적인 절세 전략 수립은 세금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하여 세금 효율성을 높이거나, 증여 및 상속 계획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분산 투자하여 세금을 최적화하거나, 증여 및 상속 계획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재무 설계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납세의무 준수

세법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세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면서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세법을 숙지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4. 미래 대비

세금 계획은 미래의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연금과 배당주, 부동산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소득원을 모색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 자금 마련도 필요합니다.

### # 재무설계와 세금의 상관관계

재무설계와 세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세금 관리는 재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금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무설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1. 재정적 안정성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재정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초과 지출을 방지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재무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2. 장기적인 재정 목표 달성

세금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 마련이나 자녀 교육비 조달과 같은 목표를 위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자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재정적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입니다.

#### 3. 재산 증식

세금 계획을 포함한 재무설계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여 자산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절세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기회 역시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 4. 재정 계획의 유연성

재무설계와 세금 계획을 통해 재정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 변화 또는 개인적인 재정 상태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법과 시장 조건에 맞춰 재정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재정 성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무설계와 세금 계획은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체계적인 재무설계는 세금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 전략을 수립하여 장단기 재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금 계획을 반영한 재무설계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며, 이는 안전하고 확실한 재정적 미래에 대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화숙 편집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초청 간담회〉

동문기업  
탐방

## 청주하이테크밸리와 HDS홀딩스 윤해달 (건축 01) 대표이사

### 충북대 동문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01학번 윤해달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고향에서 보냈으며 현재도 충북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주)청주하이테크밸리와 HDS 홀딩스의 대표이사이며 체육인들을 위해 봉사직으로 충북격투기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 청주하이테크밸리와 HDS홀딩스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는 청주시 강내면에 30만평의 일반산업단지를 기획 개발하여 분양 중이며 현재 분양율은 85%정도입니다.

HDS 홀딩스는 이차전지 관련 전문 물류센터와 환경에너지사업 그리고 자산운용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선친 밑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배우며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업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은 건설관련업과 개발 및 분양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에너지사업 및 금융사업을 계획하여 사업 다각화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북격투기협회장으로 있는데 초대회장으로서 충북으로 대한격투기연맹을 유치하고 나아가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메달을 획득할수 있도록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가로서 능력과 품격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헌신할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 대학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대학 시절은 다른 젊음이와 마찬가지로 취업 걱정과 미래의 걱정이 있던 것 같습니다.

곁에 늘 쾌활한 친구들이 있어 즐겁게 보냈습니다. 동기들과 후배님들 덕에 학과생활이 유익했으며 가업을 잇는데 맞는 전공을 공부하게 되어 더욱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추억거리는 없었지만 딱히 기억나는 것은 IMF 금융 위기 때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나는 힘든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산하는 등 참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기업승계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대통령실에서 초청을 받아 대기업들과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 초대되어 중소기업들의 상생을 토의하는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대기업들 오너들과 교류하고 소통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일들에 동참하였습니다.

###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교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학 간 통합문제 교명 변경의 문제 현명하게 잘 만들어 갈 것이라 믿습니다.

### 충북대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현재 이 사회는 많은 변화 속에 수 없이 빠르게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 맞추어 혁신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맞는 교육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세계관을 찾는 충북대 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인재로 될 수 있는 유능한 후배 양성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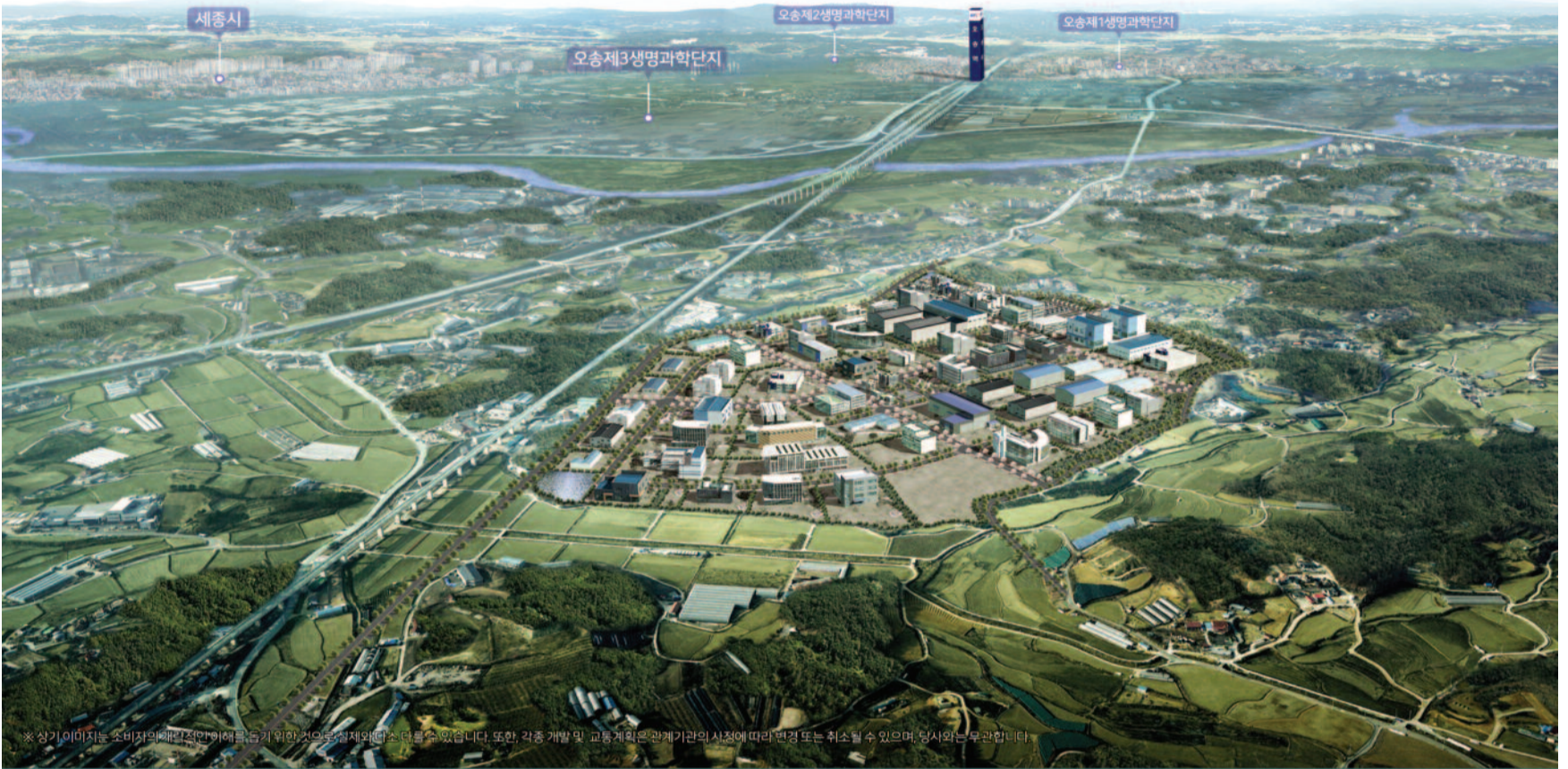
〈김두환 편집위원〉



〈대통령실 초청 간담회〉



#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비즈니스의 성공 팩트를 다 갖췄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주변 교통시설 및 주변 개발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사,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라인을 잇는 PREMIUM POINT 5



PREMIUM POINT 01.  
**다양한 광역 교통인프라 인접**  
KTX 오송역 분기점 및 경부, 중부고속도로 접근 편리



PREMIUM POINT 02.  
**오송 바이오밸리와의 시너지효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3국가산단 등과의 연계성 강화



PREMIUM POINT 03.  
**미래산업 업종에 최적화된 용지**  
바이오, 화장품,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업종 구성



PREMIUM POINT 04.  
**주요 물류시설로의 연계성 확대**  
중부내륙물류기지, 평택항 등으로의 수출입 물동량 관리 용이



PREMIUM POINT 05.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분양가 예상

※ 상기 일러스트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주변 교통시설 및 주변 개발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사,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화제의 인물



「소통하는 체육회」  
「열린 체육회」

김진균 (체교 81)  
| 청주시체육회장 |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데 체육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2기 청주시 체육회는 세계 인쇄문화인 직지 도시의 위상에 맞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88만 청주시민들의 보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체육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소통하는 체육회”, “열린 체육회”를 추구합니다. 게다가 “더 건강한 청주, 더 행복한 시민”을 모토로 항상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인과 체육인으로 근무하면서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33년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학생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항상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잘못된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거부할 용기도 있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장학관, 교장 등도 역임한 바가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을 바로 잡기엔 한계를 느껴 제18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도 했습니다.

올바른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직에 첫 발을 내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며, 현재를 넘어 아마 저의 평생의 과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청주시 체육회장으로 청주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주시와도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청주시 체육 인프라 구축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청주 무심천라이온스클럽 회장으로서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것입니다.

모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모교인 충북대학교에 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일텐 데 후배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훌륭한 시민은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북대학생들이 졸업하여 전세계에 명성을 떨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후배님들 한명 한명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한 시민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학교 동문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서로 얽혀서 살아갑니다. 혹자는 이러한 학연, 혈연, 지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들과 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 끝을 잡고 당기면 반대 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연은 서로를 기대어 살아가도록 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먼저 걸어간 선배님들의 멋진 뒷모습을 바라보며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입니다.

후배님들도 선배님들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본받아 함께 걸어간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출연 최육의 파워인터뷰



사)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와 청주시체육회 업무협약식



청주시체육회 회장 당선 후 체육회기 전달

(김두환 편집위원)

충북대 동문들에게 간단히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81학번 김진균입니다.

저는 33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였고, 청주중 교장, 봉명중 교장,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거쳐 현재는 충북학교 안전공제회 이사장과 청주시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며,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청주시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맡은

충북대 총동문회지 개신교지편집위원회



「개신」 교지편집위원회란?

교지편집위원회는 충북대학교의 교지 「개신」을 발간하는 중앙언론 자치기구입니다. 총학생회비로 운영되며 독립된 편집권을 가진 학내 유일의 자치언론입니다.

매년 학내, 사회, 문화 분야와 관련된

이슈를 담은 교지를 발간함으로써 충북대학교와 세상의 1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77집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지편집위원회 국별 소개

교지편집위원회는 편집국, 기획홍보국,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집국은 교지에 수록되는 원고를 교정·교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획홍보국은 교지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기획·홍보하고 주요 SNS를 관리합니다. 각종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네이버 포스트에 오디오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교지편집위원회의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교지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사업

교지편집위원회에서는 1년간 4개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문학공모전을 2학기에는 백일장을 진행하며 특색사업과 표지모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학공모전은 4~5월에 열리는 백일장으로 운문과 산문으로 분야를 나누어 약 한 달간 작품을 접수합니다.

특색사업은 매년 가족 자랑, 첫사랑설, 나만의 비밀 레시피 등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표지모델 사업은 교지 「개신」의 표지를 장식할 표지모델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그해 교지의 주제를 녹여낸 인터뷰를

진행해 교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지편집위원회가 학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

교지편집위원회는 매년 충북대학교와 세상의 1년을 기록하는 한 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교지에 들어가는 모든 원고는 ‘충북대 학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어야 할 주제인지, 학우들이 읽기에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오랜 고민을 거쳐 원고가 완성됩니다.

올해 77집의 주제는 ‘자화상’인데, 나의 사소한 변화를 알고 이해하며 동시에 다른 이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박준영 편집위원)



# COMMUNICATION No.1 SHOWCASE



## 더 찾아지고, 더 강해지고있는 한반도의 지진!

충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16학번  
최보연

재난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면진시스템 진열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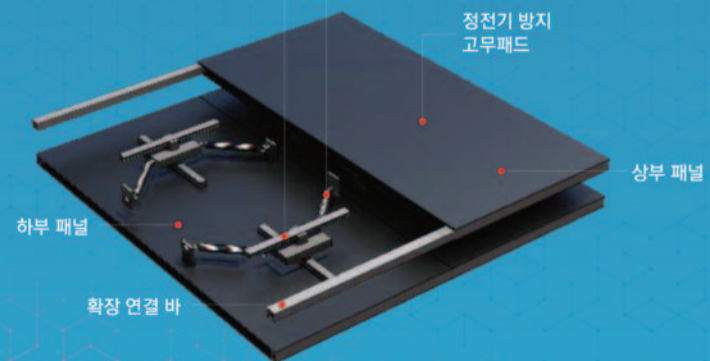
(주)씨원에스는 국내 최초로 면진시스템을 진열장 제작에 도입한 선도기업으로서 공인된 기술력과 부단한 연구개발 및 시험테스트, 수많은 박물관 설치 실적을 통해 구축한 면진진열장 제작 노하우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박물관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진의 위협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 (주)씨원에스가 앞장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LM가이드 방식 면진시스템 구성도

- LM가이드 블록**
  - 고하중 지지능력(압흔 발생하지 않음)
  - 우수한 지진 격리 능력
    - 비틀림, 들뜸 없음
  - 상하 결합 구조로 분리되지 않음
    - 360도 대응
  - 가이드 주요 구성품 신뢰성 시험으로 반영구적 사용
- 복원용 스프링(스테인레스)**
  - 지진후 원점 복귀
  - 50만회 이상 피로시험에 의한 부품 신뢰성
  - 가이드와 스프링의 이력거동으로 지진에너지 흡수 효율이 높고 지진 후 원점 복귀하는 감쇠기구



#### 면진테스트로 검증된 시스템

**국제 규격의 전파연구원 기준 면진테스트 (한국SGS 및 지진방재연구센터) 통과**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기준에 의한 시험방법 및 절차 준용
- 진도9 수준의 기능시험, 증폭시험, 변형시험, 확장시험 통과



#### 주요 기능 및 기술

- 기본 구조가 강건한 재질사용으로 장기간 사용에도 변형이 없는 성능 유지
- 진동 억제를 통해 변위 범위 이내에서 소화 가능
- 지진동 후 고정상태로의 자동 복원 기술
- 지진에너지 감쇠를 통해 대상물 안전하게 보호
- 진폭 및 고유주기를 고려한 설계 및 검증

